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제63차 성소주일 담화

하느님의 선물을 내면에서 발견하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특히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우리는 ‘착한 목자 주일’이라고도 부르는 부활 제4주일에 제63차 성소 주일을 기념합니다. 이날은 성소의 내적 차원, 곧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무상의 하느님 선물을 발견하는 것인 성소에 관하여 함께 성찰하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를 따라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길을 함께 찾아봅시다.

아름다움의 길

요한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자신을 “착한 목자”(요한 10,11)라고 일컬으십니다. 이 표현은 자기 양 떼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 주고자 하는 완전하고 참되며 모범적인 목자,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계시하는 목자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마음을 이끄시는 목자시니,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따를 때 삶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면 육신의 눈이나 미적 감각만으로는 부족하고, 관상과 내적인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멈추어 서서, 듣고, 기도하며 그분의 눈길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신뢰에 차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신뢰하니, 그분과 함께하는 삶은 참으로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움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참으로 ‘아름답게’ 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견줄 수 없는 특별한 일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은 우리를 변모시킵니다. 신학자 파벨 플로렌스키가 말했듯이, 수덕 생활은 그저 ‘선한’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어 냅니다. 실제로 성인들의 고유한 특징은 선함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이들에게서 빛나는 영적 아름다움입니다. 그리하여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성소는 예수님의 사명에 참여하고 그 아름다움을 반영함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에 함께하는 것이 임이 드러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에게도 생명과 믿음, 의미에 대한 이러한 내적 체험이 있었습니다. 성인은 『고백록』 제3권에서 젊은 시절의 자기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서, “나의 가장 내밀한 곳보다 더 내밀하게” 자리하시는 하느님을 알아뵙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넘어, 어둠 속에서 자신을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 빛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성인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이루는 자리인 내적 삶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하느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기도와 침묵을 바탕으로 세워지는 이러한 관계를 잘 가꾸어 나간다면, 성소라는 선물을 받아들이고 이에 적극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열립니다. 성소는 결코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일방적으로 따라야 할 획일적 모델도 아닙니다. 성소는 오히려 사랑과 행복의 모험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급한 과제는 내적 삶을 돌보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 성소 사목과 복음화를 위한 노력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모든 이, 곧 가정과 본당과 수도 공동체는 물론 주교, 신부, 부제, 교리 교사, 교육자, 그리고 모든 신자에게 권고합니다. 이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성장시키며 보호하고 동반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더욱 온전히 헌신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 있는 믿음으로 빛나고 끊임없는 기도로 뒷받침되며 형제적 동반으로 풍요로워져야만, 하느님의 부르심은 싹트고 자라나 한 사람 한 사람과 온 세상을 위한 행복과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보여 주시는 이 길을 걷기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자기 자신은 물론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상호 인식

“생명의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며,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십니다.” 참으로 모든 성소는, 하느님께서 사랑이심을(1요한 4,16 참조) 깨닫고 경험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아주 깊이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고(마태 10,30 참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유한 거룩함과 봉사의 길을 안내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앎은 언제나 상호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도, 하느님 말씀의 경청, 성사, 교회 생활, 형제자매들을 위한 애덕 활동 등을 통하여 하느님을 알아뵙도록 초대받습니다. 한밤중에 예기치 못하게 주님 목소리를 듣고 엘리의 도움으로 주님이심을 깨닫게 된 소년 사무엘처럼(1사무 3,1-10 참조), 우리의 행복을 위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내적 침묵의 자리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숭고한 관념이나 학문적 지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인격적 만남에 관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마음 안에 살고 계십니다. 성소는, 귀를 멍멍하게 만드는 세상의 소음 한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가 진정 기쁘게 또 아낌없이 응답하도록 초대하시는 유일하신 하느님과 나누는 친밀한 대화를 수반합니다.

“자기 자신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자기 내면으로 돌아가십시오. 진리는 내적 인간 안에 머무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잠시 멈추어 내적 침묵의 자리를 마련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충만하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각자의 талан트를 활용하도록 부르시며(마태 25,14-30 참조), 자신의 한계와 약점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십자가에 봉헌하게 하시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체 앞에 머무르며 조배를 하고, 하느님 말씀을 날마다 실천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묵상하며, 교회의 성사 생활과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이고 충실하게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우정을 통하여 여러분은 혼인이든 사제직이든, 종신 부제직이든 축성 생활이든, 어떤 형태로든 자신을 선물로 내어 주는 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소는 교회 그리고 그 성소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헤아릴 수 없이 큰 선물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분과 그분의 섭리에 자신을 내맡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섭리는 모든 성소 안에서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신뢰

앎은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확신은 믿음에서 샘솟는 마음가짐이며, 자신의 성소를 받아들이는 데에도 그 성소를 지켜 나가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앎은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행위로 드러납니다.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을 뒤흔들어 놓을 때조차 그러합니다.

요셉 성인을 생각해 봅시다. 동정녀의 잉태라는 뜻밖의 신비 앞에서, 요셉 성인은 꿈에서 계시된 하느님의 메시지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리아와 그 아기를 받아들였습니다(마태 1,18-25; 2,13-15 참조). 나자렛 사람 요셉은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완전한 신뢰의 모범을 보여 준 인물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어둠과 불확실성에 휩싸인 듯 보일 때, 그리고 벌어지는 일들이 자신의 계획과는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요셉은 하느님의 계획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확신하며 하느님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맡겼습니다. “요셉은 모든 상황에서, 주님 탄생 예고 때의 마리아와 겐세마니 동산의 예수님처럼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라고 말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희년이 일깨워 주었듯이, 우리는 절망에 굴복하지 않고 하느님의 약속을 더욱 굳건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역사든 우리 개인의 역사든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신하며 두려움과 의심을 이겨 내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두운 밤을 보낼 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당신의 빛으로 모든 어둠을 몰아내려 오십니다. 우리는 시련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빛과 힘을 통하여 우리의 성소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보며 우리를 부르신 분의 아름다움을 더욱 충만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우리가 상처 입고 넘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충실함과 신뢰로 빛은 것입니다.

성숙

실제로 성소는 고정된 목표가 아니라, 주님과 친밀함으로 유지되는 역동적인 성숙의 과정입니다. 성소를 키운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다양한 삶의 상황 안에서 일하시게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선물에 비추어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처럼(요한 15,1-8 참조), 우리 삶 전체는 주님과 굳건하고 생생한 유대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련을 통해서 그리고 꼭 필요한 ‘가지치기’ 를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더욱 온 마음을 다하여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며 우리가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는 ‘장소’ 는, 흔히 우리 삶 전반에 걸쳐 맺어가는 참되고 형제적인 유대 관계입니다. 우리가 성소를 발견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여정에서 우리를 동반하는 참된 영적 지도자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의 성소가 그 모든 아름다움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성령의 빛으로 성소를 식별하고 검증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성소는 즉시 소유할 수 있는 것, 단 한 번에 전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소는 인간의 삶처럼 점차 펼쳐지는 하나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은 보호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느님과 맺는 관계에서 영양분을 얻음으로써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소라는 선물은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과 맺는 관계 안에 자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소는, 우리가 어느 것 하나도 순전히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응답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줍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마련해 두신 분이십니다.” 7)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특히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느님과 맺은 인격적 관계를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십시오.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이며 하느님께 자신을 맡겨 드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성소라는 선물이 성숙해져,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교회와 세상을 위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줄 것입니다.

하느님의 선물을 내적으로 받아들이는 모범이시며 기도와 경청의 스승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언제나 여러분의 이 여정에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바티칸에서 2026년 3월 16일

레오 14세 교황



미사 참례 현황 총 신자 713명 중 주일미사 194명 참례 / 참례율 : 27.21%

SEONGSAN
CATHOLIC
CHURCH

평일미사	토 (4/18)			수 (4/22) 송정	목 (4/23) 송정	
	11명			14명	21명	
주일미사 (4/12)	내촌공소	토요일 저녁	두촌공소	송정공소	교중미사	철정공소
	28명	33명	29명	22명	62명	20명



우리들의 정성 부활 제3주일

SEONGSAN
CATHOLIC
CHURCH

주일 헌금	1,129,000	교무금	1,360,000	감사 헌금	200,000
양성, 복지, 원로	85,000	미래 기금	55,000		

교무금 강민정, 신현수, 손삼술, 강호석, 정구호, 노양호, 최인순, 윤정숙, 박영수, 이효순, 김석기, 김종녀, 안남선, 최윤정, 신명환, 이양자, 박갑춘, 최정화, 김순덕, 강인식

감사헌금 윤문규(하상바로) 200,000



성전 건축 기금 현황 2026년 4월 24일 기준

SEONGSAN
CATHOLIC
CHURCH

구분	이번 주	2026년 누계
	교무금 납부시 건축기금	270,000
약정 기부	12,430,000	97,470,000
2차 헌금	945,000	3,582,950
이자 수입		16,856,589
타본당 후원		2,569,000
합계	13,645,000	126,355,539
현 잔액	793,203,455	

약정기부 122세대 162,540,000원 중 97,470,000원 납부 (납부율 59.96%)

구백옥, 이미애, 박인옥, 최정화, 최정애, 김부용, 최인순, 김복연, 정현희